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3년 겨울 | 4호

특집 신라귀걸이 | 박물관 탐방 춘천박물관을 찾아서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땀기
 유물기증 中村欽哉 · 池田溫 기증자료 | 유물사랑 둘 같은 민족 — 들처럼 각양각색, 제멋에 산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 다른 만남 | 박물관 강의를 하면서 도자기 사랑
 답사를 다녀와서 치미 하나로 다시 지은 흥덕사 | 특별전을 보고 영혼의 여정
 학술발표 요지 한반도 중부지역 무문토기문화 편년 연구
 특별전 안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西域美術』 | 한국박물관회는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十一面觀音菩薩

千年大佛을
聖處女로 모시우다.
胡蘆 한 병으로
東海물을 불리시다.
웃는듯 자브름하신가 하면
조는듯이 웃으셨네.
다문듯 열으신듯 어여쁜 입술
귀 기울여 들으면
향기로운 말씀
도란도란 구으는듯 하구나.

圓光寶冠이 모두 다 거룩하다.
부드러운 두 볼
날씬한 두 어깨
春山 峨眉가 으것이 열리셨네.
결곡하게 드리우신 코
어여쁘다 방울조차 없구나.

고운지고 보살의 손
들이면서 白魚 같다.
新羅 옛 美人이
저렇듯이 거룩하오?
무릎 꿇어 우릴어 만지면
薰香내 높은 나렸한 살 기운
당장 곧 따스할듯 하구나.

— 月灘 朴鍾和 (1901~1981)

빛남과 떨림

굵은 고리 밑에 달려 있는 수많은 나뭇잎 모양의 장식들. 약한 바람결에도 마구 나부끼는 자작나무 잎새들처럼 실 새 없이 반짝거리며 황금빛을 내뿜는다. 바로 신라의 금귀걸이다. 귀걸이를 달고 움직인다면 광채도 광채러니와 장식들이 서로 부딪쳐 내는 소리 또한 맑고도 은은하게 주위를 울렸으리라.

귀걸이는 장신구 중에서도 가장 일찍 사용된 것으로 특히 삼국시대에는 남녀의 구별 없이 지배층에서 신분을 드러내는 장식품으로 쓰였다. 삼국시대의 귀걸이 중에는 단연 신라의 것이 많다. 특히 5세기부터 6세기 전 반까지 경주와 그 부근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고분들은 돌무지덧널무덤의 형태로, 여기에서는 귀걸이를 비롯해 금으로 된 많은 부장품이 쏟아져 나온다. 신라의 뛰어난 금 유물들과 이런 고분의 상관관계는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돌무지덧널무덤은 북방 초원지대를 무대로 하는 기마유목민의 무덤 형태이고, 여기에서는 예외 없이 금을 위주로 한 상당한 양의 부장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목민은 집이나 가구를 치장하지 않는 대신 부피가 작아 이동에 편리한 장신구를 좋아했고, 이는 동시에 몸에 지니고 다니는 종교적 상징물이기도 했다. 장신구를

만드는 데는 성질이 연하여 가공하기 쉽고 광택이 찬란한 금만큼 알맞은 금속이 없다. 이들의 활동 무대인 알타이(몽골어와 투르크어로 황금이라는 뜻) 지방은 금의 주산지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기네들의 聖山을 金(알타이)山이라 부르고, 금으로 된 장신구를 좋아했다.

우리나라는 금을 이용한 역사도 오래됐고 유물도 다양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유리명왕은 선비족을 물리친 신하에게 황금 30근을 하사했고, 백제 고이왕은 금꽃으로 장식한 비단관을 썼다고 한다. 무왕 때는 금갑옷을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도 있다. 신라에서는 일찍이 일성이사금이 민간에서 금과 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 신라 초기부터 금이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에서 황금을 바쳤다는 기록, 당나라에서는 금으로 된 그릇을 보내고, 신라에서는 당나라에 황금이나 금공예품을 보냈다는 기록도 여러 번 나온다. 그런가 하면 9세기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는 “신라에는 금이 많으며 무슬림들이 일단 신라에 가면 정착하고야 만다”고 기술하는 등 신라는 아랍세계에까지 한번 살아보고 싶은 황금의 나라로 알려졌던 것이다.

금제장신구 가운데 가장 수가 많고 다양한 것이 금귀걸이다. 1mm도 채 안되는 크기의 수백 개 금알갱이로 장식된 것이 있는가 하면, 푸른색의 유리옥을 끼워 넣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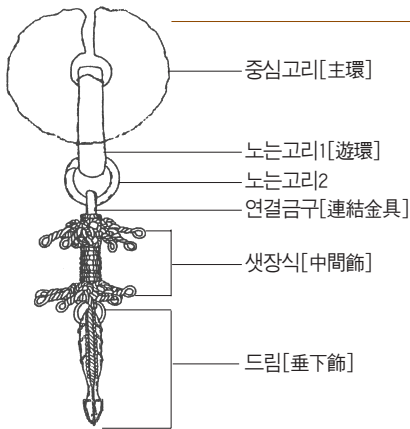
푸른색과 황금색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 등 신라의 금귀걸이는 완벽한 조형성과 뛰어난 세공술을 보여준다. 신라에서 귀걸이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던 시기는 내물마립간부터 지증마립간까지 6대의 김씨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다. 이들의 칭호인 마립간의 간(혹은 칸)은 북방 기마민족이 우두머리를 부르는 이름이다.

삼국사기는 마립간시대의 주요 사건으로 큰 물과 흉년, 역질,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기록했고, 아울러倭와의 끊이지 않았던 전투 기록을 남겨 놓았다. 그러나 당시 지배층의 거대한 무덤 속에는 화려하고도 정교한 금장신구들이 들어 있었다. 눈부신 금귀걸이에서 계속되던 재해와 전투의 흔적을 읽기는 어렵다. 오히려 금귀걸이는 신라인들이 금을 다루던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안목과 뛰어난 미의식도 함께 지니고 있었음을 증거

하고 있을 뿐이다.

귀걸이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낙랑의 귀걸이가 그 원형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낙랑의 귀걸이는 유리나 옥으로 만들어졌고 중심고리도 둥근 모양이 아니라 실패나 장구 모양이어서 삼국시대의 귀걸이와는 차이가 많다. 반면 최근 들어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흉노나 선비, 부여족의 유적지에서 귀걸이들이 발견되는데, 이들의 경우 금으로 만들어졌고 모양도 중심고리 밑에 셋장식과 드림이 있어 우리 귀걸이와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귀걸이의 종류에는 굽은고리귀걸이와 가는고리귀걸이가 있다. 귀걸이를 어떻게 매달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굽은고리귀걸이는 귀에 직접 매달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이나 끈을 이용해서 귀에 매달거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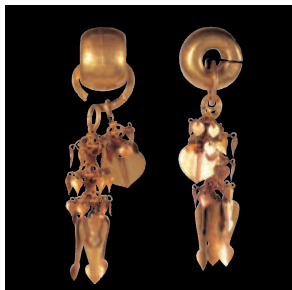


■ 굽은고리귀걸이

- 중심고리 : 대부분 금판을 여러 장 붙여 만들었는데, 직접 착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 노는고리 : 보통 두 개로 위쪽은 금판을 말아 만든 속이 빈 금봉이고, 아래쪽은 작은 고리다.
- 연결금구 : 금실이나 가늘고 길쭉한 금판으로 만들었다.
- 셋 장 식 : 가장 다양하며 시대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작은 고리를 여러 개 붙여 만든 구형이나 반구형이 많다. 수십 개의 달개를 달아 화려하다.
- 드 림 : 심엽형이 가장 많다. 크기가 작고 장식이 없다가 전성기에는 새김문테와 금알갱이를 붙였다.



경주 황남대총 북분, 5세기, 길이 6.8cm



경주 황남대총 북분, 5세기, 길이 10.6cm



경주 천마총, 6세기, 길이 7.1cm



창녕 계성 II 지구 1호, 6세기, 길이 8.3cm



양산 금조총, 6세기, 길이 9.4cm

니면 관테나 모자에 매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걸이는 또한 당시 지배층이 가졌던 권력의 정도와 영향력의 반경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금관이나 금허리띠, 금동신발 등은 왕족으로 추정할만한 무덤에서만 나오나, 귀걸이는 목걸이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장신구로 경주 이외의 지배층 무덤에서도 나온다. 귀걸이는 공정이 복잡한데다가 제작 기법상 통일성이 뚜렷해서 경주의 공방에서 집중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금귀걸이는 신라의 왕족이 지방의 지배 세력에게 나누어 준 물품으로 그들을 지배층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러나 불교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내세관이 변하고 사회체제가 재편되면서 화려한 금 장신구들은 점차 사라지고, 고려시대의 귀걸이는 남아

있는 유물이 극히 드물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생활양식이 풍미함에 따라 귀걸이를 다는 습속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선조는 귀걸이를 즐겨 다는 풍습이 남아 있다는 풍문을 듣고 귀를 뚫어 귀걸이를 다는 것은 오랑캐 풍습이며, 몸의 일부라도 훼손하는 일은 유교적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이후 남자들의 귀걸이는 자취를 감추었고, 여자들의 귀걸이만 귀에 거는 형태로 일부 남았으며 모양도 단조롭게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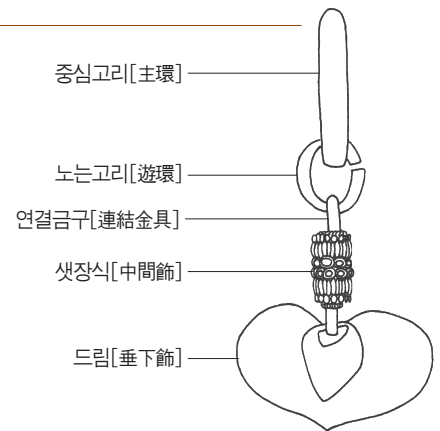
나뭇잎 모양의 드림 위에서 작은 물방울처럼 반짝거리는 금알갱이들. 금빛과 푸른색으로 하늘거리는 셋장식의 달개들은 박물관의 진열장에 있는 지금도 미세한 떨림을 멈추지 않는다. 금귀걸이는 이슬처럼 영롱하면서도 금처럼 영원하고 싶었던 신라인의 소망을 담고 있다. **진**

■ 가는고리귀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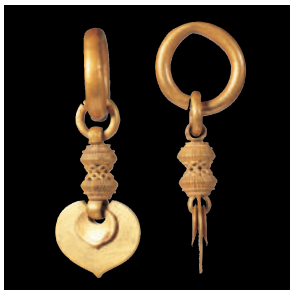
중심고리 : 금봉이나 금으로 도금한 동봉으로 만들었다.

셋 장 식 : 초기에는 작은 고리를 붙여 만든 공 모양이나 속이 빈 금구슬을 사용했으나, 5세기 후반에는 아래위로 모자 모양의 장식을 달고 그 사이에 작은 고리를 여러 개 연결하거나 금판을 원통형으로 말아넣는 형식이 유행했다. 6세기에는 금알갱이를 붙여 화려하게 만들기도 했다.

드림 : 심엽형판에 앞뒤로 작은 원형·심엽형 등의 판을 쌍으로 붙인 것이 많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 5세기, 길이 4.8cm



경주 서봉총, 5세기, 길이 5.4cm



경주 계림로 47호, 5세기, 길이 8.5cm



경주 노서리 138호, 6세기, 길이 5.7cm



경주 천마총, 6세기, 길이 6.0cm

신라인의 정교한 손끝

삼국시대는 독특하고 화려한 금속공예문화가 꽃을 피웠던 시기이다. 오랜 시간을 견뎌냈음에도 찬란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금장신구들은 오늘날 까지도 박물관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 유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세심한 손놀림과 뛰어난 창의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귀걸이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중심고리의 굽기에 따라 굽은고리귀걸이[太環耳飾]와 가는고리귀걸이[細環耳飾]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형식을 막론하고 기본 구조는 중심고리, 노는고리, 연결금구, 셋장식, 드림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주에서 매우 발달되어 유행하였다. 천마총이나 황남대총 등 신라무덤 속에서는 굽은고리귀걸이가 귀걸이로만이 아니라 冠·허리띠 등의 드림 장식으로, 또 흙을 덮기 전 목곽 위에 놓는 마지막 선물로 쓰이는 등, 귀걸이의 쓰임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는고리귀걸이는 셋장식을 화려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며, 대개 귀걸이로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귀걸이의 제작방법에는 금판을 이용한 판금법, 접합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짓는 금땀기법,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새겨 표면을 장식하는 새김눈기법과 금장신구 제작기법 중 가장 뛰어난 기술인 鑲金細工技法이 사용되었다. 鑲金技法이란 금속 표면에 가는 금실이나 금알갱이를 붙여서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으로, 고도의 금속공예기술이 축적되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교한 귀걸이를 만들었던 것이다. 누금기법에서 사용하는 금알갱이는 녹인 금물을 체를 통해 물이나 숯가루 위에 떨어뜨려서 표면장력과 갑자기 냉각되는 열을 이용해 만든다. 이러한 누금기법은 메소포타미아의 슈메르인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공예술로 스키타이 황금미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며, 그후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신라 귀걸이의 제작 발전과정은, 굽은고리귀걸이는 중심고리가 점점 커지고, 연결금구를 초기에는 금실을 사용하다가 후에 金板을 사용하기도 했다. 셋장식의 달개도 수십 개로 늘어나고, 드림에는 가장자리에 새김눈테[刻目帶]뿐 아니라 누금으로 장식해 화려해진다. 또한 가는고리귀걸이도 셋장식의 표면에 옥을 끼워 넣기도 하고, 가장자리에 금알갱이를 붙여 무늬를 나타내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신라 귀걸이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굽은고리귀걸이는 경주 보문리 부부총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6세기경의 가장 정교하고 화려한 귀걸이의 전형을 보여준다. 중심고리에 금알갱이를 붙여 거북등무늬[龜甲紋]를 만들고 그 속에 꽃무늬를 표현하였으며, 노는고리에도 표면에 금알갱이를 가지런히 붙였다. 셋장식에는 3개의 달개를 달았고, 심엽형의 드림에는 테두리와 가운데에 새김눈테를 덧붙였으며, 좌우에는 금알갱이로 장식되어 매우 화려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창녕 계성고분군 출토 귀걸이는 셋장식에 투명한 남색유리 장식과 심엽형 달개를 교대로 배치하여, 남색과 황금빛의 조화가 아름답기 그지없다.

가는고리귀걸이로서 화려한 금속공예를 대표하는 경주 노서리138호 출토 귀걸이는 가는 금판으로 만든 연결금구와 셋장식에 호박을 끼워 넣은 것이 특징이다. 금령총의 가는고리귀걸이는 연결금구가 금판이며 셋장식의 작은고리 안에 푸른색 유리옥을 끼웠다. 크고 작은 심엽형으로 이루어진 드림의 가장자리에는 새김눈테를 붙였고, 내부에는 푸른색의 유리를 덧씩워 장식하였다.

기와집 추녀가 끝없이 이어진 서라벌의 큰 길로 화관에 금귀걸이를 한 여인의 행차가 지나고, 길가 백성들이 구경하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 평생 금판을 두드리던 匠人들과 화려한 의상의 고귀한 貴人들은 모두 어디 가고, 그 아끼던 귀걸이만 우리 앞에 남았는가! **7세기**



경주 금령총, 6세기, 길이 2.9cm



중심고리 표면에 금알갱이로 장식한 꽃무늬(경주 보문리 부부총, 6세기, 길이 8.7cm)



셋장식의 달개에 장식한 남색 유리(창녕 계성 II 지구 1호, 6세기, 길이 8.3cm)

춘천박물관을 찾아서



구도와 깨달음의 聖者 羅漢. 정이 듬뿍 묻어나는 그 모습들에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느꼈다. 아니 내 가족 내 이웃들이 金銅이나 흙, 나무나 돌로 빚어진 채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듯 그렇게 앉아서 우리를 반겼다. 어머니의 온화하고 포근한 눈빛으로, 개구쟁이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더러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연민하는 고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사의 번뇌 속에서 가르침을 얻고자, 나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춘천박물관을 찾기로 했다. 아침햇살에 은빛으로 출렁이는 북한강을 따라, 푸른 하늘도 함께 흐르는 것 같았다. 경춘간도에 줄지어선 들꽃을 바라보며 익어가는 가을을 더듬는 사이, 일행을 실은 차는 어느새 춘천시 애막골의 박물관에 닿았다.

강원도의 첫 국립박물관으로 2002년 10월 30일 문을 연 춘천박물관은 현대적인 감각의 외관임에도, 아산의 능선과 골짜기를 살려서인지 친환경적으로 보였고 그 모습 또한 미려했다. 입구에는 원형 파티오 공간의 카페테리아가 시원스럽게 자리잡고 있었고, 그 곳에서 천창을 올려다보며 커피를 마시는 몇몇 관람객들의 모습이 펴이나 여유로워 보였다. 3층 규모의 건물로 4개의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 수장고, 이 밖에도 250석 규모의 강당, 그리고 야외공연장,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세미나실과 강의실,

도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다.

선사의 강원실에는 우리나라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楊口 上舞龍里나 洪川 下花溪里的 흑요석제 등의 구석기 유물과 襄陽 鰲山里나 春川 校洞의 신석기 유물, 江陵 校洞과 束草 朝陽洞의 청동기유적 출토품이 있었다. 특히 강원도의 신석기문화는 다른 지역보다 이르게 출현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강과 해안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의 강원실은 역사시대 출토품을 시대별 문화권별로 체계화하여 전시되어 있음이 돋보였다. 襄陽의 陳田寺址와 禪林院址 유물을 통해 일찍부터 찬란하게 꽃피웠던 강원도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 1948년에 발견되었다가 6·25전쟁 때 불타서 파손된 禪林院址 銅鐘은 그 원형과 복원된 모습을 나란히 보여줌으로써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낙산사 담장과 고즈넉한 산사의 뒤뜰을 재현한 야외전시장을 창 너머로 바라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웅성했던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고려의 강원실에는 당대의 걸작품인 국보 124호 寒松寺址石造菩薩坐像과 원주의 철불, 태조가 담무갈보살을 친견한 장면을 그린 黑漆金泥小屏이 전시되어 있

었다. 한송사지석조보살좌상은 일본으로 밀반출되었다가 한일협정에 따라 반환된 것이다.


조선 근현대의 강원실을 둘러보았다. 억불숭유정책으로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가 영향을 미쳐 이 지역 관련 문인들과 화가들이 서예와 회화를 많이 남겼는데, 許穆의 東海碑帖, 申師任堂의 草蟲圖, 曹世傑의 谷雲九曲圖가 대표적인 유물이다. 특히 寧越 蒼嶺寺址 출토 오백나한상들은 羅漢殿址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되어 불교문화의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한다. 또한 남아 있는 것 중 그 연대가 가장 오래된 중요민속자료 120호인 淸風府院君喪輿는 당시 왕실상여 제작을 담당했던 '귀후서'에서 만든 것으로 귀중한 몫을 하는 연구자료이다.

마지막으로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羅漢』을 관람했다. 자유분방하면서도 해학적이며 소박한 가운데 기품이 서린 나한상들을



사자무늬수막새기와
왼쪽 높이 14.5cm, 태백 본적사지

보며 넋이 나간 듯 빠져드는 자신을 느끼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무생물에 이다지도 그윽한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인들이야말로 이미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이 아닐까. 문득 어느 책의 서문에 있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 일행은 빽빽한 일정 관계로 박물관 야외에 조성해놓은 어여쁜 숲속 산책로에는 눈길만 보내고 아쉬워하며 돌아섰다. 만산 흥엽으로 온 천지가 눈부실 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시 찾으리라 기약하며 다음 답사지로 향했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오봉산 품에 안겨 있는 아담한 청평사로…….  화



아산의 능선과 골짜기를 살려 현대적인 감각으로 지은 국립춘천박물관

댕 기

예 용 해 (1929~1995)

바람이 살랑 구름이 살랑
앞집 큰애기 댕기가 내 눈에 살랑

이것은 경상북도 청도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동요의 한 구절이다. 바람이 살랑 일면 구름이 바람 따라 나부끼고 돌담 너머로 앞집 큰애기의 빨간 댕기꼬리가 바람결처럼 눈에 스치는가 싶더니 정작 큰애기는 집 모퉁이에 숨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이다.

댕기를 노래한 민요는 이 동요 뿐만 아니라 모심기 노래와 같은 노동요나 부녀자들이 부르던 부요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많이 전해서, 댕기가 머리치장을 위해서도 긴하지만 생활의 정감으로 비추어 옷매무새에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에도 부녀자들이 미장원이라는 데를 가서 머리를 자르고 지지고 볏고 해서 그때그때 돌림에 민감하게 따르는데 댕기에 대한 관심도 그 못지않은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 선인들이 댕기를 드렸던 사실은 옛글에서 아니면 삼국시대의 고분벽화들에서 짐작이 되거니와, 조선시대 말기까지 이어졌던 댕기의 종류 가운데는 의식용과 일상용이 있었고, 왕가와 반가와 상민에 따라, 또 성인과

미성년에 따라 저마다 달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곧 댕기의 종류를 도투락댕기, 드림댕기, 쪽댕기, 말뚝댕기 또는 뒷댕기, 고이댕기 들로 나눌 수가 있겠고, 거기에 천과 장식이 다양하니 구실과 마름새는 같다고 해도 꾸밈새는 댕기를 드렸던 사람, 특히 여자 마음만큼이나 각색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다양했던 댕기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했던 것이 도투락댕기였다. 도투락댕기는 큰댕기 또는 주름이라고도 불리는 의식에 쓰이는 댕기로서, 여염 여자는 혼례를 치를 때에 활옷과 함께 평생에 한 번 쓰는지라 자연히 그 꾸밈새가 화려했다.

생김새는 쪽머리쪽은 제비부리꼴로 뽀족하게 하고 끝은 일직선으로 하여 마무리지어졌다. 바탕은 검자주 비단이나 사로 만들고 너비는 3센티미터 안팎으로 하되 길이는 치마 길이보다 조금 짧을 정도로 치렁치렁하게 했다. 가운데를 접어 두 갈래로 하고 거기에 금박으로 무늬를 올리기도 하고 파란, 비취, 옥, 밀화, 마노, 진주, 석유향 같은 것으로 길상문자를 놓기도 하고 나비, 벌, 천도, 석류, 가지 같은 길상무늬를 덧붙이기도 하고 오색실을 둘러기도 하여 그 화려함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도투락댕기와 함께 한쪽으로 쓰던 댕기에 드림댕기가 있었다. 드림댕기의 폭은 도투락댕기보다 조금 좁으나 길이는 비슷하며 천은 흑공단, 사, 명주 따위로 마르고, 금박으로 무늬와 길상문자를 박고 두 끝머리에는 여러 가닥의 산호, 진주 등을 펜 술을 달았다.

도투락댕기와 드림댕기가 예장용이라면 제비부리댕기는 평상용이었다. 우리 민요에 나타난 댕기는 거의가 제비부리를 두고 읊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제비부

리댕기는 땀의 끝 모양이 제비부리처럼 뾰족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처녀의 땅아늘인 치렁치렁한 머리채에 드러진 제비부리댕기는 홍색 비단으로 마련되어, 동백기름을 발라 옷칠을 한 것 같이 윤이 나는 삼단 같은 머리와 그지없는 조화를 이루었다. 총각일 경우에는 검정색 땀기를 드러냈다.

제비부리댕기는 금박으로 뇌문이나 아자무니로 난간을 두르고 그 가운데 겹국화, 박쥐, 벌, 초롱 등을 올려서 돋보이게 했으며 더러는 땀기고에 파란, 호박, 석유향 등을 매달아 호사를 하기도 했다. 도투락 땀기나 제비부리댕기에 석유향을 즐겨 썼던 것은 몸에 석유향을 지니면 그 붉은 빛깔 때문에 벽사가 되어 잡신이 어른거리지 못하고, 또 뱀과 같은 사외로운 벌레가 범접을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쪽댕기는 머리를 쪽질 때에 드리는 땀기로써 머리채를 곱게 빗질을 하여 세 가닥을 한 올로 땅아 그 끝을 묶고 머리를 틀어 비녀를 꽂았을 때에 쪽찢 속타래 서리 사리로 피보이게 했다. 쪽댕기는 나이에 따라 젊은층은 홍색, 나이가 들면 자주를 쓰고 흠어미일 경우에는 흰 천으로, 또 늙었어도 내외가 갖으면 홍색을 그냥 쓰기도 하여, 그것이 머리채의 검은빛과 비취비녀의 산뜻한 배추색과 조화를 이루어 원색이면서도 아름다움의 극을 이루었다.

위의 땀기들이 처녀총각이나 어른들의 땀기임에 견주어 아이들의 머리치장에 쓰이던 땀기로는 말뚝땀기와 뒷땀기가 있었다.

도투락땀기와 같이 의식에 쓰였던 땀기는 옛

날 궁에서 도투락장이라 하여 그것을 만드는 일을 전업으로 삼았던 장인이 따로 있었으며, 제비부리댕기나 그 밖의 땀기도 금박을 올리는 일은 금박장이의 손을 빌려야 되었다. 개화기 뒤로 왕가의 수요는 줄었지만 여염에서는 아무나 거침없이 도투락땀기나 금박땀기를 신분에 관계없이 쓸 수 있게 되어 한동안 이들이 많이 나돌았다. 그러나 점차로 머리치장하는 방법이 달라지면서 땀기의 수요도 줄고 일반의 관심도 가셔버렸다.

지난날에는 쪽댕기를 드러서 비녀를 꽂은 뒷머리로 반태가 난다느니 상태가 흐른다느니 아니면 기태를 벗지 못했다느니 하는 등 말도 많았고, 또 생강덩굴이나 담쟁이덩굴이 열기설기 얽힌 돌담 너머로 홍색 땀기꼬리만 보아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했던 총각들의 낭만 어린 술한 상사의 사연도 이제는 모두가 퇴색하고 오직 민요의 가락 속에서나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귀여운 딸을 위해 등불 아래서 졸리는 눈을 껌벅이며 고운 제비부리댕기를 접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손길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고, 광한루의 이도령과 성춘향의 낭만의 실마리였던 그네뛰기에서 나부끼던 땀기꼬리의 여운마저도 판소리 속에서만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멀리가 아니라도 “세모시 옥색치마/금박 물린 저 땀기가/창공을 차고 나가/구름 속에 나부긴다”라고 노래했던 것도 옛그제인데 땀기가 발붙일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예용해전집2, 민중의 유산』(1997, 대원사)



고이댕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中村欽哉 · 池田溫 기증자료

서 성 호 | 국립중앙박물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중요한 유물을 기증받기로 결정하였다. 청나라의 대표적 학자들이 조선의 학자와 정치가에게 보내온 것을 중심으로 한 친필 서간들이 그것이다. 기증자는 일본에서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인 中村欽哉(나카무라 긴야·62세) 선생과 동경대학 명예교수로서 중국고대사를 연구하는 池田溫(이케다 온·73세) 선생 두 분이다.

모두 87건에 달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汪喜孫·周達·張深 등 당대 청나라의 문화와 학문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조선의 秋史 金正禧, 山泉 金命禧 형제와 부친 金魯敬 등의 학자와 金弘集에게 보내온 것들이다. 이 외에 청의 학자들 간에 오간 것과 청 학자들이나 조선의 李德懋가 밝히지 않는 수신인에게 보낸 것도 일부 있다. 이들 자료와 관련해서는 『淸朝文化東傳の研究(藤塚波, 藤塚明直編, 國書刊行會, 1975)』에서 소개된 바 있다.

위에 언급한 학자들을 비롯하여 이번 자료에 보이는 청대 학자들은 당시 청나라의 考證學과 經學·文學·書畫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사들이 조선의 당대 최고의 金石學者이자 서화 예술가인 金正禧 일가와 조선말의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김홍집에게 보내온 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유물 기증의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이들 서간문은 發受信者의 성격과 그 서간 왕래의 근본적

인 목적상 학술적, 예술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중국과 조선의 학문, 예술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적지 않은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청나라의 羅士琳(1778~1858)이란 학자가 당시의 석학 汪喜孫에게 보낸 서간이 있는데, 발신인인 羅士琳은 저명한 수학자 겸 천문학자로서 元代 朱世傑(生沒年代未詳)의 『算學啓蒙』의 조선판을 발견, 複刻한 사람이다. 그가 발견한 이 책이 중국에 역수입됨으로써 그 동안 散逸되었던 책의 내용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日本 和算의 원류가 되기도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그의 서간이 이번 기증 자료에 1통 포함되어 있는 바, 실제로 이 서간에는 자신이 발견한 조선판 『算學啓蒙』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개별 자료들에 대한 미시적인 조사와 분석이 본격화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이다.

한편 이번 자료는 청과 조선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정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조선말의 대외교류의 한 부분으로서 학문, 문화 교류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과 학자들의 개인적 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관련하여 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당시 經學과 詞翰에 두루 능통하며 吉金文字(청동과 같은 금속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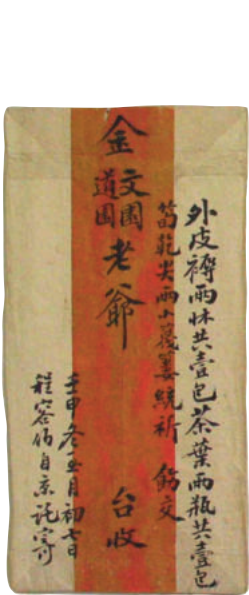
새겨진 문자)에 조예가 깊던 朱爲弼이 그림에 능한 학자 張深에게 보낸 서간이 있다. 朱爲弼은 清朝 經學의 대가로서 장차 清朝文化를 완성하여 선양해 갈 제1인자로 추앙받던 阮元(金正禧의 스승인 朴齊家와 학연을 맺은 사람으로서 金正禧와도 직접 만나 크나큰 영향을 끼친 인물)으로부터도 특히 중히 여김을 받을 정도의 빼어난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가 친구를 위해 지은 長詩를 金正禧가 읽고 이에 크게 감동하여 직접 松陰鑿古圖를 그려 張深을 통해 朱爲弼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를 받은 朱爲弼은 張深을 통해 金正禧에 대한 감사의 뜻과 선물을 전한 바 있다. 이번 기증된 자료 중에는 바로 朱爲弼이 張深에게 전한 서간이 1통 있으니 이들 3자 간의 관계에 대한 여실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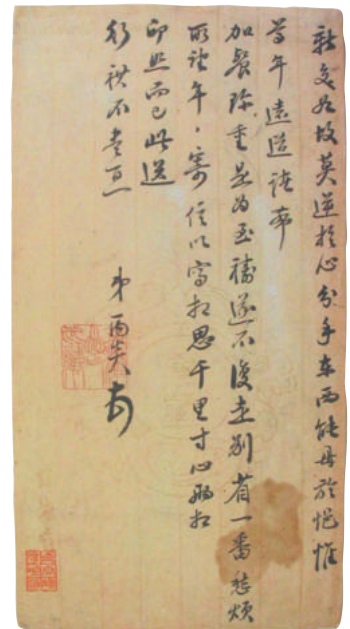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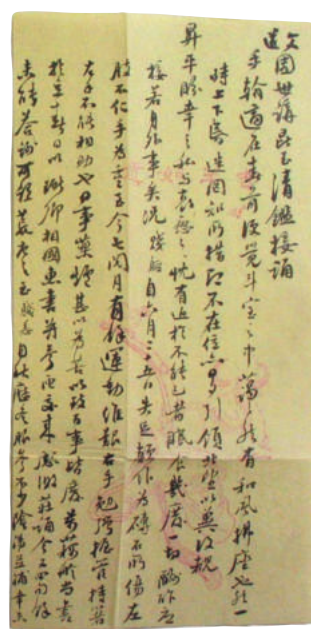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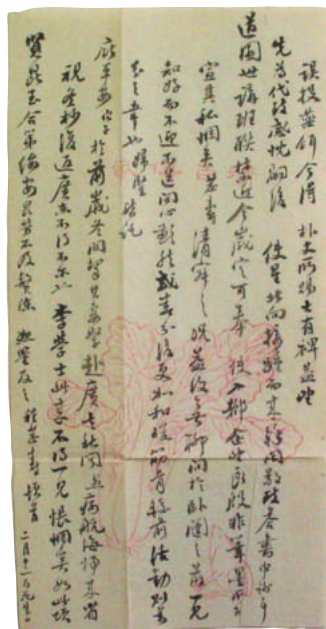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이번 자료들은 乾隆年間 이래로 전성을 구가하며 爛熟한 경지에 도달하여 있던 청대의 학계와 조

선 학계의 학문적, 예술적 수준과 내용, 그리고 양자가 접촉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학자들의 정신적, 학문적, 예술적 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당사자들의 호흡 속에 생생히 드러내 줄 수 있는 것들이라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기증유물은 용산 새 박물관 歷史領域의 종교사상실이나 대외관계실의 전시자료로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또 일급 학자·예술가·문인들의 서체를 보여주고 있어, 새 박물관 미술영역 서예실에서 전시될 수도 있는 자료이다. 게다가 단순한 전시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새로 설치하여 활동하게 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의 학술연구 분야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번의 기증유물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유물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드린다. [M]



청나라 정용백이 김홍집 형제에게 보낸 서간(1872년)



청나라 정병침이 보낸 서간

돌 같은 민족 — 돌처럼 각양각색, 제멋에 산다

소 재 구 |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경복궁을 산보하다 보면 수많은 일본 관광객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한국인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 깃발을 보며 참으로 질서 있게 행동한다. 독일 출장 때 에센(루르 공업지역의 중심도시, 쾰른 부근)에서 스웨덴의 야외박물관을 견학하기 위하여 스톡홀름으로 가는 열차표를 예매한 적이 있다. 그곳은 독일땅에서 바다를 건너 덴마크를 거쳐, 또다시 바다 넘어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들어가는 복잡한 행선지였다. 대합실 직원은 나에게 순조롭게 기차편이 연결 되도록 3국 연결티켓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주느라 한 시간 동안이나 진땀을 뺐다. 그러나 내 뒤에 줄서 있던 사람들은 정말 묵묵히 신사적으로 그 지루한 시간을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또 일본인처럼 깃발 들고 줄서서 따라오라 하면 더 안 따를 지도 모른다. 우리는 내버려두어야 한다. 산야에 널린 돌처럼 바위처럼 모두 각양각색이다. 서울역이나 대공원·백화점 등에서는 사람 찾기 일쑤이고, 단체여행할 때는 늦게 승차하는 사람을 기다리기 일쑤이다. 식당이나 열차칸에서 주위는 아랑곳 않고 술마시고 떠들고 애들은 소리지르고 이리저리 식탁 사이로 나다니고……. 그래도 너그럽게 내버려두어야 한다. 오지를 체험하는 식견 있는 답사객들에게 잠자리가 맘에 안 들 수도, 먹는 것이 입에 안 맞을 수도, 항공기 사정상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누누이 양해를 구해도 뭐가 잘못되었다느니, 여기까지 와서 왜 그 좋은 곳은 안 가냐느니, 식당이나 호텔 바꿀 수 없냐느니, 파트너 바뀔지 방값 다 낼 테니 혼자 자게 해달라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유적답사를 진행하는 후배가 있는데, 여행 중에는 물론 다녀와서도 골치가 아프단다.

우리에게 토론이란 것은 직성에 맞지 않는가 보다. 심야토론, 정치토론, 무슨무슨 초대석,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의 스캔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토론, 전화토론 등은 정말 불만하다. 규칙이나 질

서, 제한시간 등은 상관없다. 사회자는 시간에 쫓겨 토론자의 말막기에 급급하다. 국민의 대표로 뽑은 신성한 국회의 의원들도 토론의 에티켓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토론은 곧 감정싸움이 되고 만다. 한국인이 어디 가랴. 내버려두어야지.

내버려두어야 한다. 영화나 공연을 감상하면서도 할 말이 있으면 옆 사람과 속삭여야 한다. 순박하고 인간적인 정나미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제일이지 영화나 무용은 그 다음이다. 시골에서 화갑이나 혼인잔치, 초상이 나면 내버려두어도 동네 아낙은 아낙대로 아재는 아재대로 일을 도와주러 온다. 우리는 학교 가다가도 어느 집 앞에 꽃상여가 나와 있으면 학교는 팽개치고 얼른 가서 만장 하나라도 들어주었다. 자동이였다. 밤을 새며 무당이 굿을 하였다. 살풀이 춤사위에 시나위 자락이 엮어진다. 그런데 시나위는 악보가 없다. 연주자의 마음대로 삼현육각이 장단과 음조를 꾸려 그 한스런 가락을 토해낸다. 농악놀이 때 흥을 부추기는 태평소 날라리도 악보가 없다. 농악장단에 따라 날라리꾼 마음대로 즉흥연주가 펼쳐진다. 내버려두어도 멋지다. 추수가 끝나면 서커스단이 장터에 말뚝을 박고 한 달 동안이나 줄창 밤에는 공연을 하고, 낮에는 천막 앞에서 악사들이 유행가 반주연습을 하느라 나팔을 불어제겼는데, 오후반 학교를 오가며 맨날 낮놓고 구경을 하였다. 결국 나는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같은 나팔을 원 없이 불어보았다. 나는 지금도 90년대 이전의 우리 가요 중 10퍼센트 정도는 눈감고도 연주할 수 있다. 나를 내버려두었기 때문이었나 보다.

우리의 돌담은 각양각색의 돌잔치이다. 그 각양각색의 돌들이 한 데 어울려 이루어내는 미감은 너무 아름답다. 자연은 말해서 무엇하랴. 정선 소금강을 끼고 동면에서 사북으로 가는 길, 태백 통리에서 풍곡을 지나 호산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길은 정녕 각양각색의 돌바우가 어우러져 한 폭의 두루마리 그림을 펼치는 대한민국 일급의 돌길이다. 우리에게는 분위기만 있으면 된다. 각양각색이지만 뭉치면 너무 아름다운 민족이다. 별것도 아닌 각양각색의 반찬과 밥덩이가 엉겨 비빔밥 같은 오묘한 맛을 내듯, 우리는 비빔밥 같은 민족임에 틀림없다. 돌담 같은 아늑한 민족이다. 좋은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그만이다. 그 다음은 내버려두어도 된다. 작년 월드컵 축구경기 때 있어서 모두 멋진 붉은악마가 되었는데……. 선진국 같은 건 하나도 부럽지 않다. 지금은 다소 어려워도 우리는 분명 저절로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것도 남들이 인간적으로 부러워하는 참 선진국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만남

최 경 자 | 전시실 자원봉사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나의 소중함과의 싸움, 승자도 패자도 아닌 者の 작아짐인가. 유물과의 대화는 나에게 주어진 가장 평안한 시간이다. 눈도장 찍어둔 보물에 눈 인사로, 오늘 하루 또 다른 만남과 이미지가 남기를 기대한다.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는 翡色의 청자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힘찬 지느러미를 과시하며 미소짓는 물고기 문양에서 피카소도 만나고,
정교하게 나열된 국화 꽃잎에 감탄하고,
한 마리 새가 매화 꽃잎을 따는 순간을 포착한 세련미에 반하고,
陶工의 붓놀림에서 핀 수목화의 고고함에 고개숙이고,
부담스럽지 않고 풍성함과 넉넉함이 가득 찬 우리 어머니 같은 달항아리를 좋아하고,
아무 문양 없는 순백자에 내 마음대로 그림도 그리지만,
결국은 순백자로…….

부장품으로, 평생 수집으로, 전래품으로 세상 빛을 본 유물은 우리 사람의 삶과 같은 숭한 사연을 담고 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던 것이 잠시 외출을 하면 내가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장애인과의 만남은 드문 일이지만 감동은 새롭다. 백제실 전돌 복제품은 시각장애인과의 만남의 장소이다. 눈빛의 소중함을 의식하며 조심스레 시작하여 내 의사가 전달되는지 눈치를 살핀다. 하나하나 만지는 손놀림과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송곳 세우고 듣는 모습이 진지해 보인다. 이런 문양전은 불교적인 것과 도교적인 요소를 가진 다양한 소재의 그림으로 화려하며 장식적이다.

산봉우리 안에 기와집 한 채와 옆모습을 보이며 山寺로 들어가는 인물 하나, 아름다운 금강산을 표현한 山水文博. 특유의 곡선으로 울동적인 문양 구성이 특징이고, 땅은 연꽃을 상징하고 하늘은 구름을 표현하여, 두 세계가 만나 간결한 조화와 균형이 생동감 넘치는 蓮花雲文. 활기찬 모습의 표현으로 하늘로 승천하여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체인 鳳凰. 벽사의 의미와 시선의 각도에 따라 무서움과 웃음을 합성시킨 것 같고, 지금의 보도블록 같은 역할과 월드컵 때 붉은악마의 디자인을 따온 鬼面이라는 말에 더듬어 만지던 손끝의 떨림과 眉間의 움직임, 분홍빛으로 변하는 얼굴, 힘주어 잡은 손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촉감에 가슴이 저미는 마음은 딸아이의 보고품인가. 손끝으로 더듬어 파르르 떨리는 소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을 잊을 수 없다. 오늘 인연을 한 폭의 동양화 여백 속에 나를 제일 예쁘게 그려오겠다는 그 소녀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비오는 날은 이곳을 찾는 사람이 드물다. 일곱 분의 老신사들 열심히 유물을 보며 재미있게 대화하는 모습이 무척 좋아 보여, 살며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세상 살아온 연륜이 이렇게 다양한 삶들인지, 외국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 본 것 다 늘어놓으며 서로 지지 않겠다고 다투는 모습이 마치 청소년 같다. 개성에 맞게 차려입은 옷맵시가 잘 어울린다.

裝飾大刀는 무기로 사용했다기보다 威勢品으로 사용, 이승에서 지녔던 兵權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내세에서 현세의 권리를 기원해 넣어주는 부장품이라는 말에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색에 잠기는 표정은……. 무사가 환생하여 왔을까?

장고형기대의 고사리문양을 보고 중국복식을 한 신사가 자기 옷 단추와 같다며 흐뭇해 하는 미소는 황혼의 순수함이 느껴져 멋스럽게 보였다. 자연스럽게 유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검은옷을 좋아하느냐”는 한 분의 질문에, 전시실에서는 원색보다 중간색을 입는 것이 예의라고…….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온 기분이야. 밝은색 옷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모든 에너지가 멈추는 순간을 느끼며 긴 시간 동안 그분들의 표정에서 지성과 평화로움을 느꼈는데, 외모와 다르게 받은 질문을 마음에 삭이면서 자주 만나자는 인사말로 여운을 남겼다. 고맙다며 어깨에 손을 얹고, “자네 같은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가면 좋겠는데…….”

그후 나는 색깔 있는 목도리로 멋을 내기 시작했다. 

도자기 사랑

윤 용 이 | 명지대 미술사학과

하나의 도자기는 그릇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가 지닌 형태와 문양 그리고 유색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꿈이 깃든 나름대로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박물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주 도자기 이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옛도자기 이해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가지 느낀 바를 나누고 싶다.


무엇보다도 도자기는 수많은 우리의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한국인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 삶을 시작한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 철기, 삼국, 남북국(통일신라·발해), 고려, 조선, 20세기 초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시기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삶과 역사를 같이 해 온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옛 그림이나 조각, 집 등의 문화유산이 있으나, 도자기처럼 전 시기에 걸쳐 만들어 사용하고 오늘에까지 옛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 그 수량이 제일 많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신석기시대의 빗살문질그릇부터 청동기시대의 민무늬질그릇들, 초기철기시대 질그릇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수많은 질그릇들, 통일신라의 인화문질그릇들, 고려시대의 청자, 백자, 흑자들, 조선시대의 분청자, 백자, 청자, 흑자 등 수많은 질그릇과 사기그릇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박물관 수장고로 들어가 보면, 그 수량이 더욱 많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 박물관 수장품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므로 수장고나 전시실에 도자기가 많



은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주나 광주, 경주나 김해 등 지방박물관도 마찬가지이며, 호암미술관, 호림박물관 같은 사립박물관이나 이화여대박물관, 연세대박물관 등 대학 박물관의 경우도 비슷하고 해외에 있는 박물관의 한국실도 같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자기가 제작된 곳은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는 수천 곳의 제작지인 요지가 전국에 남아 있어, 앞으로도 수많은 발굴조사를 통해 그 전체적인 윤곽이 밝혀져 갈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도자기는 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남녀노소 지배층이나 피지배층 모두가 사용했던 유물이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일상의 식기 및 저장용기로서 사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발굴을 통해 옛모습 그대로-비록 깨진 것을 붙였지만-남아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도자기 외에 어떤 문화유산이 오랜 세월동안 전국에서, 한국인의 삶과 함께 문화를 담고 전해지는 예가 있을까?

1만 년간에 남아 있는 도자기의 형태와 문양, 유색을 통해 일관되게 한국인들은 단순함과 고요함을 선호해왔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도자를 통해 한국미의 특징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도자야말로 한국문화유산의 대중으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도자를 이해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도자를 사랑하는 일부터라는 것을 말해준다. 도자에의 사랑, 도자에의 이해는 도자가 그릇이지만, 그릇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랑했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 준다. 도자란 한 세계이며, 도자를 이해해 가는 것은 삶의 기쁨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 기쁨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 

치미 하나로 다시 지은 흥덕사

하영남 | 회원



“박물관 버스는 정시에 떠납니다.” 선생님의 안내를 들을 때만 해도 내 머릿속 시계는 아직 코리안 타임으로 가고 있었다. 한 5분은 기다려 주겠지. 그렇게 나는 첫 답사 버스를 정문에서 놓쳤다. 이미 버스에 오른 친구는 애가 탔다. “낙원상가 방향으로 간다니깐 그 쪽으로 와.” 차 안의 친구는 나에게 핸드폰으로 중계를 했다. 한번도 별점을 받은 적 없는 남편이 신호위반을 밥 먹듯이 했다. 차는 아슬아슬하게 버스 앞을 가로 막았다. 나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다시는 남에게 폐끼치는 일은 없으리라. 창피스러움을 결심으로 무장하느라 첫 답사는 거의 경황없이 끝냈다.

그런데 청주 답사에서 또 일을 내고 말았다. 이번에는 정말 일찍 나왔다. 느긋하게 버스에 올랐는데, 출근길 교통체증에 갇히고 말았다. 그제야 살아나는 생생한 악몽. 나는 부랴부랴 택시로 갈아탔다. 그것도 땅위에서는 똑같은 굼벵이였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못가겠어. 아니 안 갈래. 또 다시 허겁지겁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그만둘래.” 청주 흥덕사지 치미와의 만남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처음 고인쇄박물관에서 흥덕사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 답사에 대해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아침부터 버스 타기에 너무 진을 빼기도 했고, 진품이 거의 없는 박물관의 초라함에 실망한 탓이기도 했다.

박물관 관람이 끝나자 흥덕사지로 이동하라고 했다. 현존하는 最古의 금속활자본을 인쇄한 절터라니까, 둘러보거나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적 가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추었으리라. 그러나 생각보다 초라했다. 더구나 복원한 금당의 모습은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느낄 정도였다. 시멘트 몸체에 마구잡이로 칠한 단청, 불화 한 점 없이 텅 빈 외벽, 큰 절의 해우소보다 못했다. 건물 외형은 날림으로 닦은 절 주차장에 세운 화장실처럼, 한옥도 양옥도 아닌 어정쩡한 절충이었다. 금당 안에 방치된 불품없는 철불의 모습이 라니... 이렇게 망쳐 놓을 수가 있는가? 차라리 아무것도 앉히지 않았더라면 상상할 여지라도 주었을 텐데... 도망치듯 버스로 돌아왔다.

홍덕사의 기품은 청주박물관에서 되살릴 수 있었다. 제3전시실에서 위풍당당한 기와 하나를 만났다. 자원봉사자가 자랑스럽게 유물을 소개했다. “저것이 바로 홍덕사지에서 발굴된 치미입니다.” 나는 숨을 딱 멈추고 그것을 보았다. 136센티미터나 되는 높이로 먼저 나를 압도했다. 너무 커서 두 조각으로 나누어 구워 붙인 것이라다. 층진 깃털 모양의 옆면, 날아갈 듯한 새의 기상을 하고 있다. “뒤쪽엔 상하로 해와 달을 상징하듯 둥근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도깨비 얼굴을 새겨 넣었어요. 이 형상이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지 않나요?” 자원봉사자가 대답을 유도했다. 과장되게 푹 튀어나온 눈, 휘날리는 눈썹과 수염, 한껏 벌어진 입,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 다시 도깨비를 올려다 보았다. 가지런한 이빨과 입매는 분명 웃는 얼굴이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렸다. 안내하신 분이 우리를 돌아보며 장난을 걸었다. “거짓말한 사람은 구멍에 손 넣지 마세요. 도깨비가 잘라 먹을지도 몰라요.”

수강생들이 다음 전시 유물로 발길을 옮겼으나 나는 치미 주위를 다시 돌았다. 이만한 치미를 용마루 끝에 얹은 절의 규모는 얼마나 컸을까? 눈을 감고 크기를 가늠해 보았다. 절터의 넓이는 얼마이며, 어떤 간격으로 기둥이 세워졌는지, 기와는 몇 장이나 쓰였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마치 莊子에 나오는 봉(鵬)이라는 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듯이. 다시 치미를 보았다. 눈을 뜨고 바라볼수록 집의 규모는 더욱 아득해졌다. 한 순간 전시실은 조용해졌다. 답사자들이 다음 전시실로 모두 이동했나보다. 나도 눈 하나 가득 치미를 담고 걸음을 옮겼다. 눈 속의 치미가 너무 무거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상당산성 위에서 산자락 아래를 내려보고 있다. 굽고 강렬한 선을 지닌 하얀 지붕이 눈에 들어온다. “저 곳이다!” 나도 모르게 고향을 지른다. 중원을 지배한 큰 새 한 마리가 잠들어 있는 곳. 견고한 지붕이 물결처럼 일어나 푸드덕 날갯짓을 한다. 낮에 본 치미가 솟아오른다. 치미를 한손으로 받아 든다. 눈 아래 긴 회랑과 바다 같이 너른 절간이 세워지고 있다. 나는 유능한 대목이 되어 법당의 용마루 끝에 큰 치미를 내려놓는다. 귓가엔 어느새 탁탁 활자에 종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힘든 공사를 끝낸 내 눈에 홍덕사 현판이 멀리 보인다. 📖



홍덕사지, 고려 10세기, 높이 136cm

영혼의 여정

정 정 근 | 회원

선들바람 기분 좋게 부는 구월 말,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영혼의 여정』을 감상했다. 박물관특설강좌 수료를 앞두고 리포트를 써야하는 부담감으로 몇 날 며칠 고심하던 차, 흥측한 얼굴의 天王像 포스터의 묘한 위력에 넘어간 것인지.

‘명부’는 저승의 다른 말이고,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시왕(十王)들을 모셔놓은 사찰 안의 한 전각인데 일명 지장전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곳 전시실에서, 이미 부처가 되었으면서도 보살로 남아 부처 없는 곳에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지장보살과 명부에 간 망자들을 심판한다는 열 명의 왕들을 그림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陰府의 사자가 말을 타고 인간세계로 질주한다. 한 손에는 고삐를, 다른 손에는 죄인들의 명단이 적힌 두루마리를 움켜쥐고. 살가움이라고는 한푼 어치도 보이지 않는 얼굴, 夜叉가 분명하다. 선업을 쌓다 죽는 이는 아미타불이 蓮花臺를 마련하여 친히 데리러 가신다지만, 극락에 바로 가지 못할 죄인들은 저렇게 함부로 다뤄져 끌려오는 모양이다.

오랏줄에 묶인 영혼들이 멀고도 험한 路程을 거쳐 도착했다. 여독을 풀 새도 없이 피죄죄하고 주눅들린 몰골로 業鏡臺 앞에 세워진다. 시왕들의 근엄한 표정.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이라던가? 그런데 의젓하게 관을 쓰고 수려한 얼굴에 자비심 넘치는 미소까지 띄고 있어 나를 어리둥절케 했다. 불쌍 사납게 광대뼈 솟아오르고, 튀어나올 듯한 눈은 핏물로 별개져 있을 줄 알았는데.

푸른 옷의 죄인들은 벌써부터 사색이다. 발버둥쳐도 소용없고 애원해도 아랑곳 하는 이 아무도 없다. 하나하나 업경대 앞에 서 있으니, 거울은 그들이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다. 판관은 그것으로 판결문을 적어 시왕들과 지장보살 그리고 꿰어얹은 망자들을 향해 날뎌이 읽어 간다.


칼이나 몽둥이로 폭행하고 강도짓한 죄, 고문이나 살인한 죄, 꾸며댄 말과 행동으로 사기친 죄, 병든 부모를 귀찮아하고 장애를 가진 자식을 내버린 죄,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며 게으른 죄, 남의 것을 훔친 죄, 불의인 줄 알면서도 강자 편을 들어준 죄, 음란한 언행을 일삼고 양쪽을 이간질하여 싸움 붙인 죄,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생하여 그 고기를 먹은 죄, 요사스럽고 그릇된 의견을 내세워 이랬다 저랬다 두 가지로 말한 죄...

점점苛烈해지는 영혼들의 여정. 산과 산 틈에 놀리는 협산지옥,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지는 확탕지옥, 몸에 커다란 쇠못이 박히는 정철지옥, 수많은 뱀들이 몸을 칭칭 감아 죄며 독 물은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지옥, 생사를 반복하며 고통당하는 등활지옥, 뜨거운 쇠사슬에 묶여 달군 쇠도끼에 찍히는 흑승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 울부짖는 규환지옥 등 참혹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은 곧 형벌이다. 칠일에 한 번씩 일곱 번, 백일 되는 날, 일년 되는 날, 삼년 되는 날 해서 모두 열 번이다. 죽은지 일년 된 자를 재판하는 이는 도시대왕, 삼년 된 자를 재판하는 이는 오도전륜대왕이다.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오도전륜대왕은 영혼들에게 또 다른 생을 주어六道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보낸다는 것이다.

‘육도’란 고통은 느끼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세계,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늘 굶주린다는 아귀세계, 짐승으로 태어나 괴로움을 받는다는 축생세계, 제석천과 늘 다투어 끊이지 않는 아수라세계,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인간세계, 아미타불이 사는 평화롭고 안락한 천상계를 말한다.

명부전 그림을 거듭거듭 보고 나니 나도 한바탕 지옥세계를 헤매다 온 기분이다. 가볍지 않은 발걸음을 옆으로 옮기니 두 개의 업경대가 유난히 눈에 띈다. 황토색 나무로 깎아 만든 불꽃 모양의 그것은 본래 청동판 거울이 붙어 있었다는데 지금은 떨어져 나가 초라하기 그지없다. 뒷면에는 고대 인도의 고급문장어(산스크리트)로 呪文이 적혀있었지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전시실 밖으로 나오니 맑고 파란 하늘이 눈부시다. 빛도 없이 음습한 지옥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顯界의 아름다운 초가을 날씨. 그런데도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다. 불교신자도 아니면서 지옥그림 몇 점에 삶의 언저리를 돌아보게 되고, 생명 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한 업경대마저도 예사로 보지 못하는 것은 나도 치러야 할 죄과가 많기 때문일까? 

한반도 중부지역 무문토기문화 편년 연구

— 역삼동·흔암리유형을 중심으로

황 은 순 | 국립중앙박물관

南韓地域의 前期 無文土器文化는 西北地方의 팽이형토기문화와 東北地方의 孔列土器文化가 南下하여 일정기간 공존하다 두 文化類型의 複合體인 欣岩里類型이 形成하여 擴散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하한 즉 中期 無文土器文化의 시작은 松菊里文化요소의 등장을 계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欣岩里類型'에 대한 再檢討가 행해지면서 기존의 전기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編年設定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서울·경기·강원도 지역 일대에서는 아직까지 송국리문화요소가 확인된 바 없이, 현재 편년상 전기의 공렬토기문화가 후기의 粘土帶土器文化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여 중기문화가 공백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 공백상태는 공렬토기만 출토되어도 전기유적으로 보는 현재의 전기 무문토기문화의 편년관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최근 이러한 기존 편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경향 및 무문토기문화 유적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筆者 역시 중부지역 무문토기문화 편년틀에 대한 再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던 驛三洞·可樂洞·흔암리유형에 대한 土器

相·石器相·住居址相 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시간적 변화, 문화적 차이를 밝혀봄으로써 중부 지역의 소위 무문토기문화의 변천단계를 검토해보고 이 지역 무문토기시대를 다시 편년하고자 한다. 이 때 가락동유형은 역삼동유형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혼암리유형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만 다루고,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의 실제 파악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중부지역의 문화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역삼동·가락동·혼암리유형에 대한 구분은 주로 土器相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 글에서는 土器相 뿐만 아니라 石器相, 주거지구조 등 遺構·遺物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각 유형에 대한 정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각각은 개별적인 유형으로서 파악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가락동유형은 (深)鉢形土器에서 外反口緣의 出現頻度가 높게 나타나고, 石器相에 있어서는 四稜斧와 長舟形石刀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주거지구조에 있어서는 貯藏孔 시설이 출현한다. 반면 역삼동유형에서는 (심)발형토기에 있어 內彎口緣의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石器相



역삼동식토기 : 서울 역삼동, 숭실대학교

가락동식토기 : 서울 가락동, 고려대학교

방내리식토기 : 강릉 방내리, 강릉대학교

에 있어서는 圓筒斧와 短舟形石刀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주거지구조에 있어서는 저장공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락동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혼암리유형은 기존에 토기문양구성만을 통해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결합양상을 설명하였다면, 본고에서는 역삼동유형과 가락동유형의 토기형태·石器相·주거지구조를 함께 검토해 토기 이외의 문화요소에서도 兩 유형의 특징적인 요소가 결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된 각각의 유형은 4기로 편년설정이 가능하다.


I期(驛三洞類型 I段階)는 공렬토기만 주로 출토되고 三角灣入鏃이나 二段莖鏃, 有節柄式石劍 등 이른 시기의 石器相이 나타난다. 주거지는 평면형태 細長方形에 복수의 爐址가 설치되고, 벽가에는 가옥의 벽체를 보강하기 위한 시설로 판단되는 소형의 구멍들이 비교적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옥석리, 교하리, 역삼동, 당하리 등이 있다.

II期(欣岩里類型 II段階)는 二重口緣이나 短斜線요소와 孔列文이 한 個體에 완전히 結合·施文되거나 가락동유형의 한 요소와 공렬문이 결합·시문되는 양상인데, 前者가 주류를 이룬다. 石器相을 살펴보면, 석촉은 삼각만입촉이나 이단경촉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一段莖鏃도 소량 확인되고 있으며, 石劍은 二段柄式과 有莖式이 출토되고 있다. 石刀는 短舟形·長舟形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石斧 역시 圓筒斧와 四稜斧가 함께 출토되고 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 細長方形·長方形이 우세하며, 주거지 내부에서는 柱孔, 노지, 저장공 등이 확인된다. 유적으로는 교동, 조양동, 방내리, 삼거리, 관산리, 백석동 등이 있다.

III期(欣岩里類型 III段階)는 이중구연이나 단사선요소와 공렬문이 한 遺構 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이다. 석기에서는 II기의 양상에 더해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一段柄式石劍, 자귀 등이 등장하며, 석도는 단주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거지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주류를 이루며, 내부시설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특히 저장공 시설이 급감한다. 유적으로는 미사리, 혼암리, 현화리, 조동리, 와우리 등이 있다.

IV期(驛三洞類型 II段階-君德里類型)는 孔列, 口脣刻目孔列, 口脣刻目文 등이 施文되고, 石器는 삼각만입촉이나 이단경촉, 이단병식석검 등 이른 시기의 유물보다도 일단경촉, 일단병식·유경식(송국리형)석검 등 늦은 시기의 유물 출토량이 증가한다. 석도는 短舟形이 주종을 이루고, 石鑿, 有溝石斧, 자귀 등 單刃石斧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거지는 대부분 별다른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IV기에 속하는 유적 중에는 유구석부와 유경식(송국리형)석검 등 중기 무문토기문화요소가 확인되고 있어 그 동안 이 지역일대에 문화적 공백상태로 남아있던 중기 무문토기문화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유적으로는 포월리, 청당동, 신달리, 고강동, 지제동, 군덕리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단계에 해당하는 유적들의 양상은 순수하게 역삼동유형이라기 보다는 혼암리유형의 특징이 일부 남아있는 變形 역삼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중기 무문토기문화로서 송국리문화요소까지 등장하고 있어 역삼동 I단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역삼동 I단계는 역삼동유형으로, 역삼동 II단계는 이 시기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군덕리유형을 모델로 하여 별도로 '군덕리유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렬토기만 출토되어도 전기유적으로 보는 기존의 편년관에서 파생하는 역삼동유형에 대한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적 공백상태로 남아있던 이 지역 중기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實體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필자의 편년안 중 I~III기는 기존의 편년단계상 무문토기문화 전기로 볼 수 있으며, IV기는 충청 이남의 송국리문화단계에 대응하는 무문토기문화 중기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회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의 요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품은 거의 우리나라 출토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변 문화권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살펴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앙박물관에는 20세기 초 오오타니 [大谷] 탐험대에 의해 수집된 중앙아시아 유물이 상당량 수장되어 있어,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지대에서 형성된 화려한 불교문화를 비롯하여, 사막의 건조지대에서 형성된 오아시스 문화의 편린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전 안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西域美術』



天部胸像, Murtuk(Turfan), 6~7세기


지구상의 유일한 지리학적 공백지대로 남아 있던 중앙아시아의 東투르키스탄[현 중국의 新疆위구르自治區]지방은, 19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쟁탈지로 화하였다. 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이 지역에 정치·군사적 목적의 탐험대를 계속 파견하여 정보수집을 활발히 전개하는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 시작되었다. 건조지대인 타림분지의 사막에서 이러한 탐험과정 중 고문서를 비롯한 有機質材 출토유물이 계속 발견되고, 이들 유물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판명되면서, 중앙아시아 탐험은 점차 지리·역사학적 규명을 목표로 한 학술탐험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스웨덴의 헤딘, 영국의 스타인, 프랑스의 펠리오, 독일의 르콕, 그린베델, 러시아의 올덴부르크 등이 앞을 다투어 타클라마칸 사막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학술탐험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당시 런던에 체재하고 있었던 일본 교토(京都)의 淨土眞宗 本願寺派 本山 니시홍간지[西本願寺]의 제22대 門主였던 오오타니 코오즈이[大谷光瑞, 1876~1948]는 직접 불교전래의 중요한 경로였던 서역지방을 답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이 지방에 대한 탐험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 탐험대는 젊은 學僧이 주축이 된 결과, 불교에 관한 식견을 바탕으로 뛰어난 수준의 유물을 수집할 수는 있었으나, 고고학적 식견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발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3차에 걸친 탐험 결과 수집된 유물이 西本願寺의 재정문제로 당시의 朝鮮總督府博物館과 旅順의 關東廳博物館 등에 수장되는 등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현재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들 유물 중 일부는 1916년 5월 서울에 도착하여, 그 해 9월부터 景福宮 修政殿에서 해방될 때까지 상설전시되었다. 해방 이후 6.25전쟁과 박물관의 잦은 이전으로 이들 유물은 그 일부가 간헐적으로 전시되다가, 1986년 8월에 구 중앙청 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실」이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1996년 현 박물관으로 이전하면서 전시면적의 축소로 다시금 수장고에 격납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가을에 개관할 예정인 용산의 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중국실, 인도·동남아시아실, 일본실과 함께 중앙아시아실이 동양부의 독립된 전시실의 하나로 개설되어 다시 일반에게 상설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12월 16일부터 개최되는 특별전시는 용산의 박물관에 개설될 중앙아시아실 전시를 대비하여, 이제까지의 연구성과를 전시에 반영해 보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전시실 운영을 위하여 전시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의 중국 新疆 각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알기 쉬운 시각자료로 설명함으로써, 관련 유물들의 출토정황 및 그 의미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또한 전시유물의 백미인 서역벽화는 그동안의 보존처리 성과를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은 石窟寺院의 벽화를 비롯하여, 불화, 불상, 토기, 토용, 생활용품 등 약 150점을 종교문화, 일상생활문화, 매장문화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시할 예정이다. 이 유물들을 통하여 우리 문화와는 전혀 다른 풍토에서 형성된 중앙아시아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교류의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횡적 연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伏羲女媧圖, Astana(Turfan), 7세기



雙耳壺, Khotan, 3~5세기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俞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 會 長 | 俞相玉
 副會長 | 李京姬 · 許東華
 理 事 | 李健茂 · 金容元 · 金宗圭 · 朴魯壽
 朴容允 · 徐載亮 · 李福衡 · 李仁洙
 全晟雨 · 鄭良謨 · 池健吉 · 千炳玉
 千信一 · 崔永道
 監 事 | 權泰宣 · 李起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평생 · 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 · 금관 · 은관 · 청자 · 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 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지기 상임이사
 田永採 전 해피아이 회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 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 · 교육 · 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버루, 18세기 노안도죽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 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을 구입 기증했다.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 · 답사를 다녀와서 · 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 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8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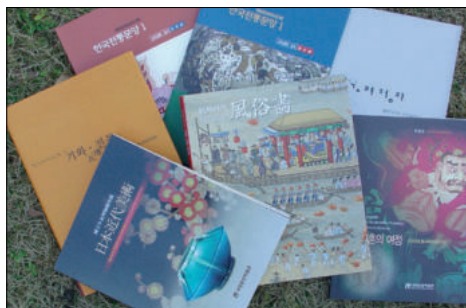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 · 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 · 실측, 토기편 맞추,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 · 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 · 원고 수집 정리 · 디자인 작업 · 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 · 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2004년 ICOM서울총회 자원봉사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북쪽의 설원 작자나무 숲을 지나온 바람소리가 들린다. 경주 넓은 벌의 고분에서는... (은)

가벼이 벗어버린 裸木이
깨달음의 聖者 나한의 모습이여라. (화)

그때도 보고 지금도 보니,
알갱이 금, 느껴지는 그 맛... (水)

바람이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역새꽃의 너울거림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 머문 흔적 그려낼 수 있을 듯도...하다 합니다.
빛으로 하여 아우러진 幻인 것을... (海)

낙엽 밟는 소리조차 귀결이의 달랑거리는
소리인 듯... (世)

山을 나서니
구름이 옷깃에 가득하네(出山雲滿衣). (山)

그렇지 않아도 웃음많은 나를,
더 많이 웃게 했던 「박물관사람들」.
내년에는 더 아름다워지기 바랍니다... (娘)

또 해가 진다. 강가의 시인은 말한다.
“지면서도 아름다운 것은 해뿐이로구나.
저도 아름다운 것은 사랑뿐이로구나”라고... (진)

우리는 늘 누군가를 지우고,
누구에게겐가 지워진다. (경)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4호

발행일 | 2003년 12월 15일
발행처 | 한국박물관회
발행인 | 유상옥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김은희 손이화 안해옥 오세화 유건집 진수옥 최경자
디자인 | 전영랑
진행 | 이흥표 민혜진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10-820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경주 보문리 부부총에서 출토된 것으로 정교하고 화려하여 신라의 금속공예기술을 잘 보여준다. 중심고리는 금알갱이를 붙여 거북등무늬를 만들고 그 속에 꽃무늬를 아름답게 표현하였으며, 노는고리에도 금알갱이를 가지런히 붙였다. 색장식에는 많은 달개를 달았고, 심엽형 드림에는 테두리와 가운데에 새김눈테를 덧붙였으며, 좌우에는 금알갱이로 장식되어 매우 화려하다. 6세기, 길이 8.7cm, 무게 58.8g, 국보 90호,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Sejong-no 1, Ch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